

되어 있다. 한편, 타이드 원조 적격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신청이 들어온 경우는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시의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War Chest의 투입여부는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, 이는 미수은과 재

무부간의 War Chest 운영원칙 및 기준에 대한 해석방법의 차이로 알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2년 개정된 미수은법에 반영된 것이다.

【김 재 철, 워싱턴사무소】

◆ 호주 EFIC, 수출중소기업 앞 운전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

호주수출금융보험공사(EFIC)는 담보부족으로 운전자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로이 EFIC Headway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. 동 프로그램은 이미 금융기관에서 최대한도로 대출중인 수출중소기업이 담보제공 없이도 대출한도의 최고 20%까지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다. 현재 Westpac, HSBC, ANZ, NAB,

CBA, BankWest 등 6개 금융기관이 EFIC의 동 프로그램에 따른 추가대출이 가능한 은행이다.

호주 정부는 본 지원 프로그램이 중소기업의 운전자본 부족으로 인한 수출기회 상실을 방지하여 수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.

【안 선 우】

◆ 미수은, 멕시코 국영석유공사(PEMEX)에 2억 달러의 채무보증 지원

미수은이 지난 8월 멕시코 국영석유공사(PEMEX)의 Minatitlan 정유공장 현대화 3단계 사업에 2억 달러의 채무보증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. 본 건에 앞선 1단계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 및 수출보험공사가, 2단계 사업은 스페인 ECA인 Cesce가 각각 1.3억 달러와 3.5억 달러를 직접대출 및 보험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 바 있다.

미수은은 동 금융지원으로 인하여, 미국

내 40여개 중소기업이 PEMEX와 총2.2억 달러 상당의 기자재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. 향후에도 미수은은 80% 이상의 금융이 중소기업과 연계되도록 하여 중소기업에 지원역량을 집중하고, 이를 통해 지속적인 국내 고용창출이라는 설립목적에 보다 충실할 계획이다.

【이 진 희】

◆ 캐나다 EDC, 크라이슬러 멕시코법인 앞 2억 달러 신용공여

EDC는 최근 다임러크라이슬러 멕시코법인 앞으로 다임러크라이슬러 캐나다로부터

생산된 자동차의 구매자금으로 활용될 약 2억 달러 규모의 신용을 공여키로 하였다.